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53호 현대불교

29

2011년 9월 14일(음 8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다 봐야 다 얻을 수 있고 다 줄 수 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5(여): 큰스님,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올라온 신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제 경험담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작년 12월 초쯤 됐는데요, 제가 여성의류 대리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처사하고 돌아 집에 들어가면서 가게 문을 열어 놓고 들어갔어요. 홀딱 열어 놓고, 그것도 셔터 문도 열린 상태에서 안에 들어가는 출입구 문까지 완전히 열어 놓고 돌아 다른 쓰레기를 버리는 사이에 그거를 잊어 버리고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차를 타고 획, 문 열어 놓은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저희 집 처사하고 애들이 공부하는 뒤에 앉아서 저녁 늦게 아이들이 공부다 하고 들어갈 때까지 늘 관을 하면서 수행을 해 왔어요. 그날 저녁에도 관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 있었는데, 제 그 마음자리에서인지 그때는 그것도 잘 모를 때였는데요. '무엇을 관하고 있었느냐. 네가 나를 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를 지키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난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왜 이런 생각이 날까?' 하다가 저희집 처사가 주방에서 따로 관을 하다가 들어왔기에 '아니, 이상하게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네가 나를 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금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게 느껴진다.' 그랬더니 '둘로 보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그걸 반복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소상하게 얘길 했더니 "그럼 주인공하고 대화를 한 거야?"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라기보다 일방적으로 제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랬는데 하직이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셔터 문이 활짝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문도 열려 있고 안에 들어가는 출입구 문까지도 다 열려 있고 아, 그래 놀라서 들어서 막 뒤져 보고 금고도 열어 보고 그랬는데 전혀 아무 이상이 없고, 들어가는 출입구에만 신문이 세 부가 던져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집 처사 찾마디가 "주인공, 밤새도록 지키느라고 애썼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제 자신이 느꼈어요.



그림 · 최주현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정말 진정된 공부로 들어간 건지, 작은 체험뿐 아니라 이라저러한 체험을 제가 아주 피부로 느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안의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돌아가고, 넉넉한 거는 없어도 마음들은 모두가 편안하게 서로 인정해 주고 아껴 주는 마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제가 공부가 잘된다고 신나라 했거든요.

또 큰스님 법문 테이프를 생활처럼 늘 들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생활을 위해서 수행을 했는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어느 사인이 모르게 제가 수행을 위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수행하는 데 지장만 없으면 어떠한 문제도 나한테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는데,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큰스님 법문 테이프를 늘

만 뜨면 듣고 잡자기 직전까지 관하면서도 듣고 관 안 할 땐 안 하는 대로 또 듣고 일을 하면서 듣고 그렇게 해 나왔는데, 요 근래에 테이프를 들으면서 제가 뭐가 모르게 아주 묘하게 터득이 될 것 같은 부분이 자주 와서 당는데 그게 잘 안되고, 그거를 자주 터득을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답답하고 머리도 무겁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알리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진실하게 그것조차도 그 자리에 맡겨야지만 순리대로 이게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웬지 거기에 자꾸...

큰스님: 이거 봐요. 다 나와 다 얻을 수 있어요. 다 얻을 수 있어야 다 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명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문을 열어 놓고 자기도 하고, 때로는 잠가야 할 때는 안 잠그고 또 잠그지 않아야 할 때는 잠그고 들어가는 수가 많아요. 이것을 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

까 그 말이, '네가 나를 지켜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급하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기막힌 자기의 보배입니까? 자기 앞에 보배를 두고 탄 데 어디 가서 찾습니까? 바로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자기 불성인 뿌리죠. 그 뿌리만이 바로 자기의 그 마음을 통해서 일러 주기도 하고 뜻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급하니까 그런 거지, 맥이 잘라서 그런 건 아니죠. 하하하...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밍다, 잘못한다 하더라도, 급할 때는 당기는 것이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거기만을 의지하고 거기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진짜 쫓도 피고 열매도 맺고 제 나무에서 무르익어서 만 가지 맛을 낼 수가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질문자5(여):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막 차를 타고 오면서 옆

에 앉아 있는 처사한테 제가 말을 했어요. '우리한테 지금 현재 딱쳐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큰스님 법회에 참석해서 우리 둘이 똑같이 한마음으로 관을 해 보자.' 이렇게 전달을 하고 올라왔는데 여기 와서 첫 질문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큰스님 말씀에 '맥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한마음 자리에서 다 알았다.' 그랬으니까 저도 다 안 걸로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다행이구면요. 하하하...

질문자6(남): 춘천에서 왔습니다. 제가 직장 일 등으로 큰스님을 자주 뵙진 못하지만, 큰스님 비디오하고 한마음 회보를 수시로 보고 큰스님께 말씀 들은 거를 한량없이 받아가서, 그걸 심봉 삼아 주인공에 맡기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 가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쭙려고 하는데 첫번째는, 제가 (반야심경)을 공부한 지 만 5년 만에 나름대로 뜻이 다 와 닿더라고요. 그다음에 뜬구름을 보고 '마음 법이 뜬구름과 같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큰스님 죽비 소리에 '뉘을 마음도 없구나.' 하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 가서 주인공한테 관하고 맡기고 하는 것을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심봉을 잡고 공부를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일전에 관세음보살 정근을 사무실에서 혼자 조용할 때 했었는데, 정근을 해 나가다가 불현듯 큰스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홀연히 대자유인이 느껴지면서 '열반의 경지라는 게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느낌이 와 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중생계를 넘어서는 듯한... 그때 제 눈에 저도 중생이면서 중생들 삶을 보니까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듯이 전부가 처처(處處) 부처님이신데, 단지 자기 본래면목이, 여래장(如來藏)이 여래장임을 모르고 오색무지개를 떠다가 집안에 갖다 돌려놓은 그 일체 유위법을 환상으로 보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서 울고불고 야단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큰스님 앞에 왔으면 꼭 이렇게 떨립니다. 하하하...

그런데 매일 예불을 드리거나 그러면 주변에 있는 병든 이, 미혹한 이, 이런 사람들이 저와 공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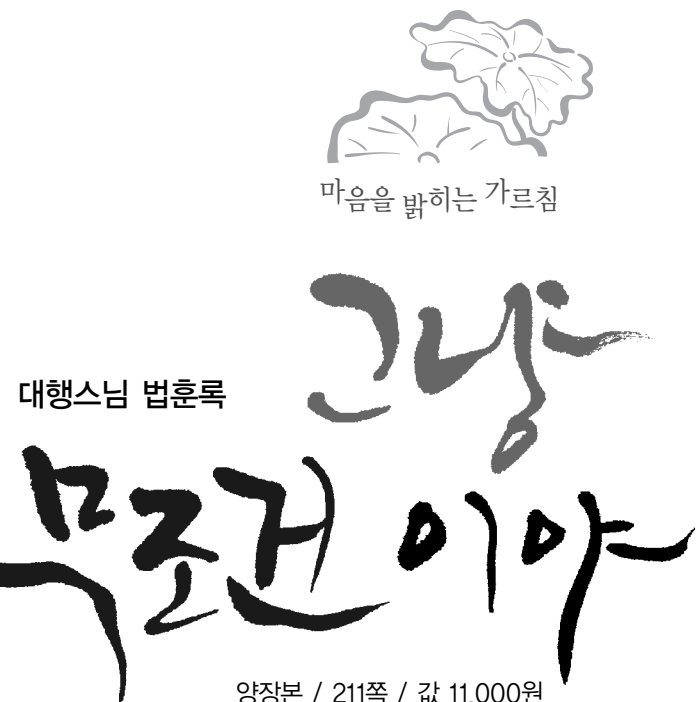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상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 본문 중에서

자기 앞에 보배를 두고 딴 데 어디 가서 찾습니까!

29면에서 계속

부를 같이 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도도 하고 관하고 계속 마음을 내고 그러니까. 큰스님께서 그전에 '하늘을 보면 웃고 땅을 보면 눈물이 나온다.' 그러셨는데, 제가 그 주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상당히 많이 흐릅니다. 여름철 한낮 나서 올라 가는 매미는 천지가 여름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살이는 낮만 있고 밤과 새벽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물 안 개구리는 천지가 우물 뚜껑만하다고 주장하면서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온 습과 업의 그 독 속에 파묻혀 가지고 그 시각에서 세상을 보면서 울고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힘도 없어서 그런지 고집 세고 자기주장을 강변하는 사람들을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는 어떻게 공부할 해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질문을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수능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크스님: 뭘 보니까요?

질문자6(남): (수능엄경)이요. 거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여래가 멸한 후에 말법시대가 되면 고기 먹고 다 하면 서도 소위 도를 깨쳤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볼 때에는 효봉 스님이나 경허 대선사 같은 분은 결림이 없이 행을 하셨는데, 저는 재가불자지만 마음은 스님같이 끝없이 닦아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주변의 사람들하고 직장에서 어울리고 하다 보면 뭐, 매운탕도 먹을 때가 있고 술 한잔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마귀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때때로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허 스님이나 효봉 스님의 그 결림 없는 행을 보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이 항상 걸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제가 이후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하고요, 두번째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하고, 세번째는 재가불자라고 하지만 제가 주변의 사람들하고 매운탕 먹고 이러는 것이 공부를 진정으로 해 나가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큰스님께서 법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크스님: 첫째는 자기를 자기가 이끌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자기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들을 제도를 못했기 때문에, 조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셋째는 남들에게 보이는 이 모습이 부처님 모습 같지가 않으니깐 그렇고 하하하... 어때요? 모든 것을 알지만 해도 아니 되느니라.' 하는 거는 '천차만별로 잘나'

나 바뀌고 잘나잘나 나투는데,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내 도량 아님이 하나도 없고, 하다못해 곤충에 이르기까지 나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는 그 뜻을 모르게 되기 때문이죠. 천차만별로 내 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제도를 못했기 때문이지. 어디로 가, 그게? 그 속에서 나오는 게 그냥 그렇지.

그러니 아는 것만 많고 지식이 많고 모든 걸 달달달달 외워서 이 세상이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를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다 리병신이 돼서 요만큼 한 발짝을 떼어 놓지 못하고, 귀머거리가 돼서 듣지 못하고, 눈 한쪽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헛거야. 전부! 그래서 부처님이 '오신통을 한다 하더라도 했다 하고 하지 마라. 모두 오신통 안에 조복을 받고 오신통을 벗어나야만이 오신통을 굴리고 그 응신이 화해서 천백억으로 나투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천백억이란 숫자를 말하는

서 천차만별로 돌아가고 나투는 그 법을 알고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 즉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올려놔도 공양(供養)이라고 하지 밥이라고 안 그러죠? 공양, 공양을 올린다 그러죠. 이 세상 생명을 가진 것들은 전부 공식(供食) 아니까요. 공식으로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공식이 될 수 있어야만이 여래도 될 수 있고 공처도 될 수 있는 거지, 공생(共生) 공심(公心) 공용(公用) 공제(供體) 공식(供食)이 아니 되면 그건 공덕이 될 수가 없어. 너, 내가 따로 없이 나투니까 말이야.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든 약한 사람을 보든, 그것을 '너는 약해.' 이렇게 보질 마라, '너는 참 잘났어.' 이러지도 마라, 이러는 겁니다. 그런 왜? 나쁜 사람도 금방 좋아질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좋게 하는 사람도 금방 언짢은 일을 하고, 사기도 칠 수 있어!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모든 것이 잘나잘나 화해서 돌아가

면서 소임을 맡아 가지고 가는 것이라는 그 생각을 잊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탤런트로서 맡은 소임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것이 오다음 생에도 오는 거니까요.

질문자6(남):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금생에 부처님 법을 따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인공 자성(自性) 부처님과 큰스님, 그리고 시방 제불보살 마하살님께 그 한량없는 감사함을 항상 느끼면서, 세세생생 시방 제불보살 마하살님들, 그리고 대행 큰스님 곁에 있기가 원합니다. 그걸 항상 발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도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가장 사람답게, 그리고 눈을 감을 때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크스님: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알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뉘어요.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듯하게, 응? 그냥 무지하게, 그냥 들어가

면 염불을 하면 다르게 보고, 요런 선사는 옳고, 저런 선사가 그르고 이렇게 선사 타령들을 해가면서 그런단 말입니다. 딱 이렇게 종지를 해 놓으면, 그거는 수만 명이 깨쳐도 하더라도 부처님 한 분이 두 분도 아니예요.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수만 개의 마음이 한데 합쳐져도 그건 여래일 뿐이지! 그리고 부처님일 뿐이요!

그리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예요, 모두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 몸뚱이 속에 지금 잔뜩 들어 있는 생명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벗어나지 않는 생명들이 모두가 한데 합쳐서 공생으로 살고 있고, 공용을 하고 있고, 공식을 하고 있고, 공제로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여래거든요.

그러니 심사숙고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그 아만과 야상, 모두를 다 놔서 내가 깨달아 가지고, 즉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생활하는데 그대로 응용한다면 좋죠.

질문자6(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빌 때까지 큰스님 말씀 하나도 빼먹지 않고...

크스님: 관세음보살 따로 찾고 뭐 따로 찾고 이런다면 어떻게 부처님이 여래가 될 수 있어요? 보세요. 한 부처님이 마음을 내면 아홉이 될 수도 있고, 아미타도 될 수 있고, 관세음도 될 수 있고, 지장도 될 수 있고, 칠성 부처도 될 수 있고, 산신도 될 수 있고, 용신도 될 수 있고 모두가 한 부처 속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용신이란 법을 말하죠? 생각을 내는 거를 바로 용신이라고 해요.

질문자6(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빌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사회자: 이것으로써 오늘 큰스님의 법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큰스님께서 오늘 통역 법문까지 하시라고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오늘날이 이렇게 행복감을 느껴보지 못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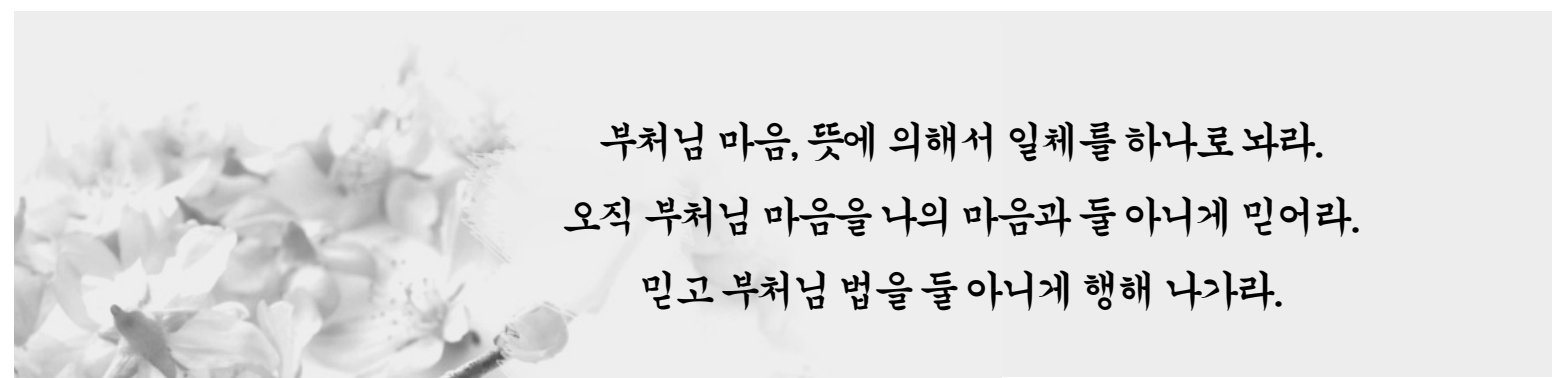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저희 공부가 소홀한데 정말 제 타구 만리에서까지 저희 큰스님을 뵈고 마음공부를 하려고 온 오스트리아 비엔나 청년, 상당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대중 박수)

크스님: (환장하시며) 저분이 좋아하시네요. 하하하...

사회자: 저희 합창단이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노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크스님: 어디 얼마나 들었나 봅시다. 하하하...

*위 법문은 94년 9월 4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마음, 뜻에 의해서 일체를 하나로 보라.
오직 부처님 마음을 나의 마음과 둘 아나게 믿어라.
믿고 부처님 법을 둘 아나게 행해 나가라.

게 아니예요.

그러니 아는 것을 다 놓으면 혹시 모르지. '아이고 이것이 열반경지가 아닌가. 이 세상이 다 그런 게 아닌가. 이게 내가 홀연히 깨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 안다 하더라도... 이 물 컵에 물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알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 물 컵을 들어서 목마른 사람을 먹일 수 있고 내가 (물을 마셔 보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야만이 그게 도 아닌 도예요. '도'도 이렇일 뿐이지, 도 아닌 진실한 도! 그러니까 그 아는 것을 다 좀 놔보면 좋겠어요. 네? 그 아는 것을 그 나오는 구멍에, 보고 듣고 알고 이러는 것을 나오는 거기다가 다시, '아는 것도 내가 아는 거지 내가 아는 게 아니냐, 또 듣는 것도 내가 듣는 거지 내가 듣는 게 아니냐,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냐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되뇌어만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건 남이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속 시원히 털어놓고, 진짜로 그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그래서 '공덕이 다' 하고 쉽게 말을 하지만, 공덕은 사무사유(四無四有), 이 모든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 전체가, 우주 전체, 삼라대천세계가 한데 합쳐져

는 것을 직시하고, 나는 항상 근본을 믿고 근본에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뱃돌이 돌아가는데 그 심봉은 힘만 배출해 주지 움직여지진 않는다. 그러나 뱃돌은 실 사이 없이 돌아간다. 실 사이 없이 돌아가는데다가 내가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갈아 먹으려고 하는 재료를 갖다 넣는다. 그래서 갈려 나오면 그걸 받아먹는다. 그러니까 그 힘을 배출해 줄 수 있는 그 심봉만을 진짜로 믿고 거기가 심봉을 똑바로 꽂아야 갈려 나온다는 걸 미리 알고, 갈려 나오는 것도 거기를 믿어야 하고, 갈려도 놓을 때도 거길 믿어야 하고, 감사하게.' 그런 거와 같다이 소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안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러한 의문을 답답하게, 내 안으로부터 모든 걸 자아내서 내가 지혜롭게 알고록 생활을 그렇게 하시면서 진행해 나가다 보면 생활이 그대로 법이예요. 부처님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예요, 그냥. 그리고 부처님의 몸이자 우리들의 몸이구요. '일체제불의 마음' 그것을 부르면서 한번 생각 해 보세요. 우린 더운 거 찬 거 가리지 말고, 더우나 차나, 질살든지 못살든지, 모든 생활은 우리가 무대 위에 올라서서 탤런트 생활을 해 가

라구. 부처님의 마음을 나와 둘 아나게 믿고, 부처님의 법을 둘 아나게 따르면서 부처님의 행을 둘 아나게 하면서, 삼합이 둘 아나게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이렇게 관하고 들어가게끔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 한국의 불교가 부처님의 마음을 둘 아나게 믿고 부처님의 법을 둘 아나게 따르고, 부처님의 행을 둘 아나게 하게끔 종지를 세워서 전체 불자들이 이끌어 간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종지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모아 뭉다가 벌거져 헤쳐 놓고, 헤쳐 뭉다 벌거져 놓고 이렇게 아단들을 하니, 제가끔들 그냥 그냥 모두 흩어지죠. 불자들이,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하나로 뭉쳐왔어요. 타의에서 구하는 기도지마는. 그런데 깨치진 못할지언정 질서는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佛) 종지를 '부처님의 마음 뜻에 의해서 일체를 하나로 보라. 오직 부처님 마음을 나의 마음과 둘 아나게 믿어라. 믿고 부처님의 법을 둘 아나게 행해 나가라.' 이렇게 해어면 우리가 각자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돌아가는 믿음이 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를 모시면 또 다르게 보고, 요거를 모시면 다르게 보고, 요런 염불을 하면 다르게 보고, 저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연구, 새로운 시각, 다양한 주제!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D.J. 칼루파하니/김종욱 옮김/신국판양장/544쪽/25,000원
불교 철학의 역사 전체를 훑다 본연의 가르침에 따라 정리한 역사!

2 한국의 불교의례 I

정각 저/신국판양장/460쪽/23,000원
한국불교에서 행해지는 의식 및 의례의 역사와 절차, 의미 등을 규명한 책!

3 밀교학 개론

종석 저/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밀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종합불교·현실불교로서의 밀교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책!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塚本善隆 저·이정수 역/신국판양장/576쪽/27,000원
법화경 성립의 배경을 문헌학, 고고학, 미술사, 고문서학, 비문학, 고대사회학에 의거하여 실증한 책!

5 성철선사상

도대현 저/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돈오돈수와 중도로 집약되는 퇴공 성철의 선사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한 최초의 책!

6 인도불교사

정순일 저/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인도 불교의 중요 불교교리와 인물, 핵심 개념과 경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7 주역선해 연구

정화 저/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명말 고승인 우익지육이 『주역』을 고도의 불교사상으로 재해석한 『주역선해』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지현 저/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붓다 당시 승단분열의 역사적 과정을 제바달라의 파법륜승, 파승가를 중심으로 객관적이면서 생생하게 추적한 책!

9 불성론 연구

최현민 저/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본성론적 불성 이해에 기반한 수증관의 문제점을 지시하고 새로운 불성론과 수행론을 제시한 도겐의 사상을 궁구한 책!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신국판양장/416쪽/23,000원
불교의 수행론인 마음챙김과 한의학의 치유론인 사상의학 간의 다양한 융합과 그것이 가져오는 창조적 과를 규명한 책!

11 청송의 선과 철학

소광희 외 저/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신의 세계』라는 저서를 통해 동양적 사유의 결정체인 선과 서양철학의 회통을 추구한 청송 고령근의 사유세계를 정리한 책!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인터넷 검색창에 「붓다북」을 검색해 주세요.

「붓다북」에서 총서를 구입하시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붓다북
바로가기
QR코드

